

“아! 참혹한 5월이여... 아! 광주의 눈물이여”



집단발포 한 시간 전 1980년 5월 21일 12시께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 한 시간 뒤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다.



“살인마 전두환” 학생과 여성들이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적힌 미니버스를 타고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청 유혈진압 1980년 5월 27일 오전 7시께 전남도청을 진압한 계엄군 특공조가 시민군 부상자와 시신이 뒤엉킨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시와 노래에서 묘사됐던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은 26일 공개된 보안사령부 사진첩 13권(1769매·중복포함)을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39년 만에 공개된 ‘그날의 기록’에는 군화발에 짓밟힌 광주시민의 고통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관련기사 2, 3면>
 시민으로 위장한 군 요원이 촬영했거나,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전남매일) 기자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추정된 이들 사진 속에는 머리를 감싼 채 금남로에 쓰러져 있는 ‘시민의 공포’와 곤봉으로 내려치는 ‘계엄군의 잔인함’이 여과없이 기록됐다.

또 겁에 질린 고교생을 붙잡아 놓고 찍은 사진에는 ‘폭도’라고 기록했으며, 무릎을 꿇은 시민군 앞에 총과 각목, 심지어 가위를 놓아둔 채 신군부와 계엄군의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기록사진도 남겨졌다. 특히 ‘앵꼬’(퐁질)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주유소 풍경을 사진으로 남긴 뒤 ‘광주사태 기간 중 시내 모든 주유소의 기름은 거의 탈취됐다’고 기록해 ‘폭도들이 장악한 광주를 군인이 수복했다’는 신군부와 계엄군의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왜곡 흔적도 이번 보안사령부 사진첩 곳곳에 담겨 있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보안사령부)가 국가

보안사 5·18 사진첩 13권(1769매) 공개

1980년 당시 계엄군 촬영·광주일보 기자에 압수한 사진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통해 5월 그 날의 참혹한 현장 공개 사진첩 중 5~17번 공개... 1~4번은 빠져 원본 은폐 주장도

기록에 이관한 해당 사진첩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공개했다. 사진첩에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수집한 기록사진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군이 헬기를 통해 선무 활

동을 하는 모습과 계엄군에 의해 사살된 희생자들의 사진 등이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당시 계엄군의 진압 활동과 5·18 항쟁들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5·18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진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은 5·18 관련 단체와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추후 사진 분석을 통해 사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번에 공개한 사진첩 외에도 10여건의 5·18 민주화운동 자료를 비공개로 분류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또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이관한 5·18 자료들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의 일부가 은폐되거나 폐기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이 5번부터 17번까지로 1번부터 4번까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93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보안사에 보관됐던 5·18 관련 자료들의 원본이 폐기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군·검찰·국정원 등의 미공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조속히 진상조사위가 출범, 5·18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폐막... ‘3대 미래청사진’ 공동발표

‘신남방 2.0’ 발판 마련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윗 째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 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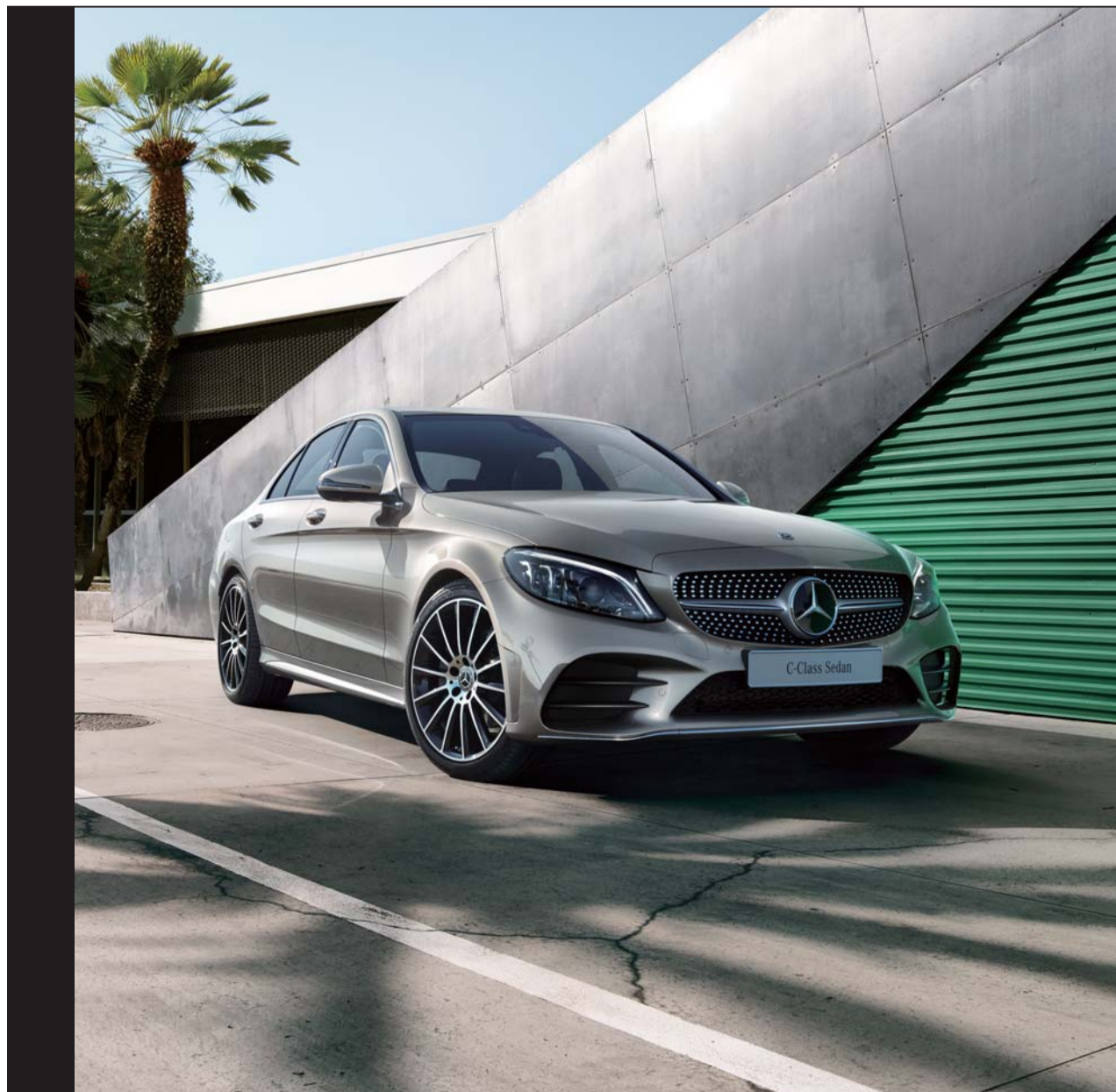
“아세안 공동번영” 문재인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찌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프라윗 째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쉘언 폭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수흐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톤톤 시숀랴트 라오스 총리. /연합뉴스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의 장 성명’도 채택했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

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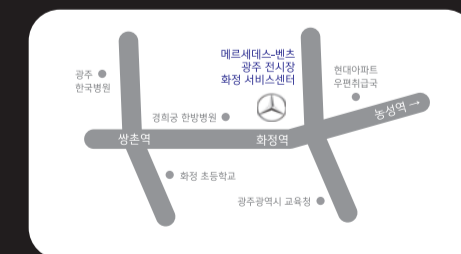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심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